

전북도, '1회용품으로 부터 독립 선언'

군산 근대화 거리에서 옛날 의상·홍보문구 활용 '1회용품 줄이기 홍보활동' 전개... 지구 환경 위한 도민 실천 확산 기대

전북도와 군산시는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맞아 군산 근대화 거리에서 6·10 만세운동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과 홍보문구를 활용해 1회용품 줄이기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전북도에서는 매월 10일을 1회용품 없는 날로 정하고 지난 3월부터 매월 10일에 도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없는 날 홍보 활동을 전개해 왔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10일 '1회용품 없는 날'을 맞아 군산 근대화 거리에서 6·10 만세운동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과 홍보문구를 활용해 1회용품 줄이기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에는 전북도와 군산시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6·10만세 운동 당시를 떠올릴 수 있는 의상을 갖춰 입고 군산 근대화 거리를 찾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전북도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환경이 나날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국민이 독립운동을 하던 선열들의 절실한 마음을 떠올리며 작지만 1회용품 하나부터 줄여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홍보활동을 기획했다.

1회용품 줄이기가 생활 속 실천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홍보 활동을 전개

할 계획이다.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도민들이 생활속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개인컵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배달음식 주문시 1회용품 받지 않기 등 친근한 주제들을 선정해 실천을 유도한다.

유희숙 도 환경복지국장은 "6월 1회용품 없는 날인 10일이 공교롭게 6·10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날과 겹쳐 의미가 남다르다"며, "1회용품 없는 날 실천운동이 전국으로 확산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비록 작아 보이지만 이러한 실천운동이 1회용품으로부터 독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되는 그날까지 1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에 도민들이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 도내 종목단체 사무국장 간담회

종목별 경기 주관단체 관계자에 대한 경기담당관 위촉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완주 상관리조트에서 도내 종목단체 사무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회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 지역 25개 종목단체 관계자들이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뜻을 모으는 자리였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부터 논의됐던 시도 및 종목별 쿼터제(선수배정) 협의와, 참가자 등록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회

등록시스템 시연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종목별 경기 주관단체 관계자를 경기담당관으로 위촉했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목단체 관계자분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내년 5월 12~20일까지 9일 간 도내 14개 시군 일원에서 26개 종목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정은성 기자



전북투어패스 이용권 할인 판매

전북투어패스 '여행가는 달' 맞이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여기어때 특가·위메프 기획전 진행... 최대 31% 할인

전북도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하여 6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 전북투어패스 이용권을 최대 31% 할인 판매한다.

전북투어패스는 7일부터 9일까지 여기어때 '평일특가' 판매를 진행했고, 13일부터 15일까지 위메프 '투어 패키지' 기획전을 통해 전북투어패스 이용권 상품을 최대 31%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6월 여행가는 달을 맞이하여 전북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프로모션 기간 중 구매할 전북투어패스 이용권으로 전라북도 100여 개 자유이용시설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40여 곳의 맛집·숙박·체험·전시 등의 특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진행 상품은 전북투어패스 통합 이용권 1일권 4,500원(약 23% 할인), 2일권 8,900원(약 31% 할인), 3일권 1만3,500원(약 27% 할인)이며 구매 직후부터 7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북투어패스는 다가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등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리는 '내내여행박람회'에 참여해 투어패스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전북투어패스 통합권을 할인판매 할 예정이다.

16~19일까지 온라인에서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투어패스 인스타그램(https://www.instagram.com/jtourpas)에서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간단 OX퀴즈 이벤트를 통해 110명의 당첨자를 선발, 총 130만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운동목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여행가는 달을 맞아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인 여행을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고 여행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전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무주 산골영화제 행사장 내에서 전북투어패스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500매를 판매했고, 1천여 명이 방문하여 전북투어패스 브랜드 홍보 기회를 마련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생생장터, 흑수박 '블랙위너' 판매

전북도는 올해 첫 전북생생장터 '제철제맛' 기획전으로 '완주 흑수박, 블랙위너'를 판매한다

전북도와 농협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정재호), (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은 2022년 첫제철제맛 '완주 흑수박, 블랙위너' 기획전을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제철제맛 품목인 완주 산례 '블랙위너 수박'은 물 빠짐이 좋은 만경강변 사질토에서 30여 농가가 2020년부터 재배한 신품종이다. 특히, 도에서 지원한 산례농협 농산물유통센터(AFC)

에서 공동선별을 통해 아삭한 식감과 높은 당도의 상품만을 출하한다.

소비자는 13~19일까지 전북생생장터(freshjb.com)나 앱에서 주문시 산례 블랙위너 5~7kg를 최대 40% 할인 받을 수 있다. 물량은 1,100개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주문한 수박은 수확 후 일일에 무료 배송할 예정이다. 또한 N농협은행, 전북은행 카드로 2만원 이상 구매시 10% 추가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생생장터(freshjb.com)와 고객센터 ☎1668-1278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전북 100인의 아빠단 4기 발대식' 개최

'자녀와 잊지 못할 추억 쌓기, 100인 아빠 프로젝트'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회장 김희수)는 지난 11일 오전 11시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100인의 아빠들이 자녀와 잊지 못할 추억쌓기 프로젝트 시작을 알리는 '전북 100인의 아빠단 4기 발대식'을 열었다.

'전북 4기 100인의 아빠단'은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들이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육아에 대한 고민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이다.

협회는 지난 5월 3~7세 자녀를 둔 전북 거주 초보 아빠들을 대상으로

4기 아빠단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120여명의 신청자 중 100명을 선발했다.

이날 발대식은 4기 아빠단이 처음으로 만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고 동료 아빠들과 소통하는 자리다. 행사는 △100인의 아빠단 4기 소개 △주요활동 안내 △선언문 낭독 △현장토론회 △풍선쇼(벌룬매직) △아빠

와 자녀가 함께하는 스포츠스타킹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4기 아빠단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의 여정을 떠난다. △온·오프라인 주간 미션 수행 △아빠랑 체험프로그램, 아빠랑 전통체험) 등 육아와 관련한 다양한 체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소방, '이해충돌방지법' 순회교육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지난달 19일 시행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6월 한 달간 13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자체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 금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의무, 공직자가 가족의 채용 및 수의 계약 체결 제한 등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 배경과 취지, 주요 내용에 대한 사례 중심 설명을 통해 법의 이해도를 높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경수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숙자(1944. 10. 28.생 2022. 3. 31.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조형섭 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2-단69 상속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조형섭
▶피상속인: 망 이숙자(1944. 10. 28.생 2022. 3. 31. 사망)
최후주소: 전주시 덕진구 무삼재6길3 (인후동 1가)
▶공고안 오지명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22. 6. 7.
▶공고기간: 2022. 6. 13. ~ 2022. 8. 12.
▶주소(청구인) 오지명
전주시 덕진구 하차4길 15 (덕진동 2가)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